

국내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음악중재연구 분석

이승은*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음악중재연구의 전반적 특성, 중재내용의 특징, 제시된 음악중재 실행방법의 기술수준과 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음악중재의 전문성을 알아보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 및 목표영역에 따른 비교를 통해 연구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분석기준에 부합하는 KCI 등재(후보)학술지 게재논문 20편을 선정 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실행된 중재내용의 특징이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 및 목표영역별로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음악중재 실행방법의 기술수준과 논거의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음악치료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논거를 제시한 연구가 2편에 불과하였고, 중재전문성에 따라 목표와 중재논거의 연결성 및 접근법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음악치료 전공 여부에 따라 중재논거의 기술수준과 구체성에 차이가 있어 추후 중재연구 결과 해석 시 중재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 및 목표영역에 따라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접근법 및 제시논거의 차이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의 중재연구에서 음악치료 논거의 구성 및 기술의 구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핵심어 : 지적장애, 음악중재연구, 아동·청소년, 음악치료

*주저자 및 교신저자: 대구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음악치료사, 음악중재전문가(KCMT)
(mte15se@naver.com)

I. 서론

2018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90,780명 중에서 지적장애는 절반 이상인 48,747명(53.7%)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지적장애의 비율은 장애 영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 음악관련 연구들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지적장애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Jang, 2017; Kim & Kim, 2015).

음악치료는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치료 매체 중 하나로 임상 및 연구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가창활동, 악기연주, 음악과 동작, 음악감상 등의 활동은 주의조절능력 및 집중력을 향상시키며(Morton, Kershner, & Siegel, 1990), 수용언어 및 의사소통기술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g & Lee, 2014). 뿐만 아니라 가사 및 선율을 직접 구성하는 기법을 포함한 치료적 노래만들기를 통해 자기표현능력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중재로도 활용하는 등(Yun, 2018) 다양한 형태의 중재가 적용되고 있다. 연구에 있어서도 인지, 사회, 정서, 언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며(Kim, 2013; Lee, 2012), 다양한 목표영역별로 계획된 중재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음악활용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음악중재는 실제 특수교육 현장에서 음악교육과 음악치료의 측면이 모호하게 구분되어 사용되거나 중복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Kim, 2013; Park, 2013). 음악치료와 음악교육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음악을 통한 개인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음악치료는 치료접근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중재를 중요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음악에 반응하여 행동이 변화되는 과정을 중요시하며 음악과 전문음악치료사 모두 중요한 구성요인이다(Bruscia, 2014). 반면 음악교육은 음악성 및 음악적 능력의 계발을 추구하며, 음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중요시한다. 또한 교사의 지도 외에도 교육환경 내에서의 음악경험 전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교사의 도움 없이 음악을 경험하고 스스로 음악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음악교육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 파악을 통해 음악교육과 음악치료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Seung, 2006).

이러한 필요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임상현장에서 참고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Kim, 2013; Lee, 2012; Lee, 2015). 하지만 선행 분석연구들은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전반적 동향을 살펴본 연구이거나(Kim, 2013; Lee, 2012), 분석대상연구의 선별을 위한 키워드가 음악치료와 음악교육의 구분 없이 음악으로 공통되어 있어 단순한 음악활동과 음악치료중재가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대상 연구에 포함되어 있었다(Lee, 2015). 해당 연구들은 음악치료라는 키워드로 제목에서 검색되었지만 음악치료의 개념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연구 또한 분석대상 연구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어떤 중재 요소로 인한 결과인지는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의 현장에서 음악중재를 적용하기에는 추가적인 검증과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Lee, 2015).

이처럼 선행문헌에서는 접근한 음악중재의 개념이 모호하여 연구결과 및 결론에 타당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논의점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중재연구를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분석하여 연구의 전반적 특징을 살펴보고 중재내용을 논거 중심으로 분석하여 음악치료 중재 근거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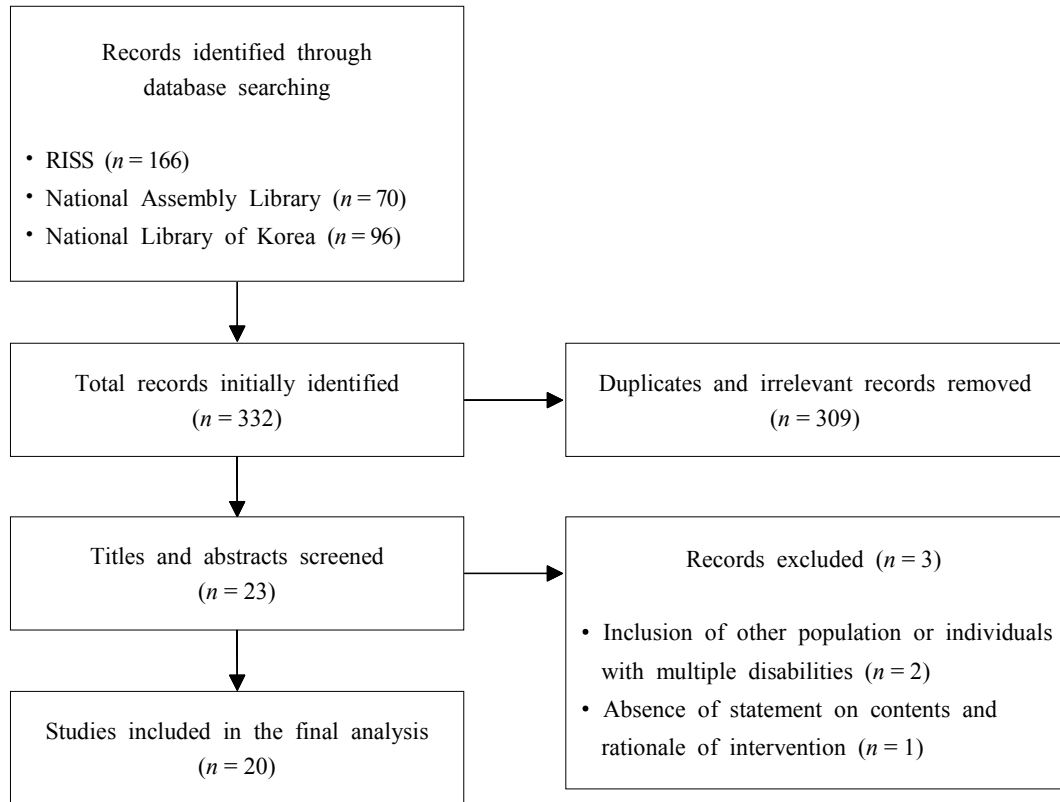
1.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음악중재연구의 분석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 등록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대상 연구로 포함하였다. 검색을 위해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회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중재내용과 관련하여 ‘음악치료’, ‘음악중재’, ‘음악활용’ 등의 주제어를 포함하며, 연구디자인에 있어 집단실험연구, 단일대상연구 또는 사례연구로 진행된 연구를 검색하였다. 초기 검색된 332편의 논문 중에서 관련이 없거나($n = 260$)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n = 49$)을 1차 제외하였고, 이후 논문초록과 본문 내용 확인을 통해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이 아니거나, 중복장애를 포함하는 연구, 분석내용과 근거가 불충분한 연구 3편을 제외하였다. 최종 20편의 논문이 선정되었고 논문의 선정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선정된 논문 리스트는 <Appendix 1>에 제시되어 있다.

2. 분석 항목

1) 연구의 전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연구의 전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대별 현황,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 연구방법, 대상자의 연령대를 분석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의 경우 음악중재연구의 특성상 단일대상연구나 사례연구와 같이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은 연구방법도 포함되어 분석하였으며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단일집단 사전사후, 단일대상연구, 사례연구로 나누어 연구방법을 분석하였다.



<Figure 1> Flow chart of literature search.

2) 분석대상연구의 중재내용

(1) 목표영역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 포함된 연구의 목표영역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음악활동을 통한 발달영역의 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목표영역의 분류는 크게 지각·인지영역, 운동·신체영역, 언어·의사소통영역, 정서영역, 사회영역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Chong, 2015), 자해행동, 상동행동과 같은 부정적 행동의 감소를 목표로 한 연구의 경우 특정행동에 기인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행동영역으로 추가하여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 신체, 언어, 정서, 사회, 행동영역의 총 6개 영역으로 나누어 목표영역을 분석하였으며, 목표영역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세부 음악활동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연구에서 활용된 세부 음악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분류기준(Ahn, 2014; Kim & Kim, 2015)을 참고하여 노래부르기, 노래토의, 노래만들기, 가사바꾸기, 구조화된 악기연주, 즉흥연주, 음악감상, 신체활동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가사바꾸기는 기존 곡의 가사만 부분 및 전체적으로 바꾸는 활동을 포함하고, 노래만들기의 경우 새로운 멜로디와 가사를 창작하여 노래를 만드는 활동을 포함하였다. 모든 활동은 치료사가 아닌 음악활동을 경험하는 내담자의 행위에 따라 분류되었다. 분류된 음악활동은 목표영역과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3) 목표영역별 음악중재의 특징

목표영역별로 음악중재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선정된 연구의 목표에 따라 인지, 신체, 언어, 정서, 사회, 행동영역으로 나누었다. 또한 음악중재의 특징은 제공된 음악활동, 사용악기, 사용음악, 음악제공방법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3) 음악중재관련 실행방법 기술의 수준과 논거의 적절성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음악중재 실행방법의 기술 수준과 논거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 마련을 위해 국내 리듬중재 연구의 제시논거를 고찰한 연구(Chong, Lim, & Hwang, 2018)와 국내외 호흡재활을 위한 음악중재 연구의 치료 논거를 분석한 연구의 분석기준을 참고하였다(Lee, 2018). 이를 바탕으로 1차 평가기준을 구성하고 전문가 검증을 받은 결과, 선행연구의 분석기준에서보다 목표영역과 중재의 연관성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술된 내용의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재구성하였다. 해당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대상 연구의 연구방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으며, 0점부터 4점까지 총 5단계로 나누어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Appendix 1> 참조). 제시된 내용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논의하여 그 적절성을 평가하였으며, 전체설명 수준을 검토하여 점수를 평가하였다. 이후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연구를 대상으로 2차적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목표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riteria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Intervention and Its Rationale

Score	Criteria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ement on applied music and music activities in relevance to target goal areas • Statement on the rationale for intervention based on music therapy theory or previous research findings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ement on applied music and music activities in relevance to target goal areas • Absence or insufficiency of statement on the rationale for intervention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ck of relevance of applied intervention contents to target goal areas, but detailed statement on applied music and music activities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mple statement on intervention contents without detailed information on music and music activities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sence of relevant statement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검색된 논문 332편 중 음악이 증재도구로 활용되지 않은 연구이거나 제목에서 음악, 지적장애, 정신지체 등 관련 키워드가 확인되지 않는 연구 260편과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 49편을 1차적으로 제외하였다. 이후 연구의 초록 및 내용확인을 통해 연구대상이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이 아니거나, 중복장애를 포함하는 연구, 분석내용과 근거가 불충분한 연구 3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0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1. 분석대상연구의 전반적 특성

1) 국내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음악중재연구의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포함된 20편의 연구 중 음악치료전공 저자의 연구는 13편, 특수교육, 언어치료 등을 포함한 타 분야 전공 저자의 연구는 7편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예술심리치료연구였으며,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은 단일대상연구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8세에서 13세까지의 초등학교 연령이 가장 많았다.

2. 분석대상연구의 증재내용

1) 연구변인의 목표영역별 분류

연구변인의 목표영역별 분류 결과 인지영역에서 시행된 연구가 7편(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영역에서 5편(21.7%), 행동영역에서 4편(17.3%), 언어영역에서 3편(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영역과 신체영역의 연구는 각각 2편(8.7%)으로 가장 적은 편수로 나타났다. 목표영역이 2가지 이상인 연구의 경우 각각의 영역에 따라 중복 포함하였기 때문에 영역별로 취합된 총 논문의 수가 분석대상 연구 20편보다 많게 제시된 경우가 있다.

2) 세부 음악활동

세부 음악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목표영역에 따른 분류와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른 분석결과로는 음악치료분야와 타 분야 모두 노래부르기와 구조화된 악기연주가 가장 많이 활용된 활동으로 나타났다. 노래토의, 작곡과 같은 활동은 음악치료분야에서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Type of Applied Music Activity Depending on the Field of Study of Researchers

Type of music activity	Field of study of researchers, n(%)				Total
	MT (n = 13)	Non-MT (n = 7)			
		Sped	SLP	Psychother	
Singing	11 (26.2)	3	2	1	17
Structured instrumental playing	11 (26.2)	3	2	1	17
Music and movement	6 (14.3)	3	2	-	11
Improvisation	4 (9.5)	2	-	1	7
Music listening	4 (9.5)	2	1	-	7
Changing words to songs	2 (4.8)	1	-	1	4
Song discussion	2 (4.8)	-	-	-	2
Song writing	2 (4.8)	-	-	-	2

Note. MT: music therapy; Sped: special education; SLP: speech-language pathology; Psychother: psychotherapy.

목표영역에 따른 분석 결과로 인지영역에서는 구조화된 악기연주와 노래부르기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언어영역에서도 노래부르기와 구조화된 악기연주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정서영역에서는 노래부르기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구조화된 악기연주와 즉흥연주가 다음

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또한 정서영역에서는 타 영역과 달리 노래토의, 노래만들기가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동영역의 경우 노래부르기, 즉흥연주, 구조화된 악기연주가 활용되었으며, 사회영역의 경우 노래부르기, 구조화된 악기연주, 음악감상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Music Activity Applied for Target Goal Areas

Goal area	Singing	Song discussion	Lyric changing	Song writing	Improvisation	Structured playing	Music listening	Music and movement
Cog (<i>n</i> = 4)	3	-	-	1	-	4	-	1
SpL (<i>n</i> = 4)	3	-	-	-	-	3	1	2
Emo (<i>n</i> = 4)	4	2	2	1	2	2	2	2
Beh (<i>n</i> = 3)	2	-	-	-	2	2	-	2
Soc (<i>n</i> = 3)	2	-	1	-	-	2	2	2
Mot (<i>n</i> = 1)	-	-	-	-	-	-	1	1
Multiple								
Cog/Beh (<i>n</i> = 1)	1	-	-	-	1	1	-	-
Cog/Mot (<i>n</i> = 1)	1	-	-	-	-	1	1	1
Cog/Emo (<i>n</i> = 1)	1	-	1	-	1	1	-	-
Total	17	2	4	2	7	17	7	11

Note. Cog: cognitive; SpL: speech/language; Emo: emotional; Beh: behavioral; Soc: social; Mot: motor.

3) 목표영역별 음악중재특징

각 목표영역별로 포함된 연구에서 시행된 음악중재의 목표는 단일영역과 복합영역으로 구분된다. 자세한 내용은 <Appendix 3>과 <Appendix 4>에 제시되어 있다.

(1) 인지영역

목표영역이 인지영역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 음악치료인 연구가 5편, 심리치료인 연구가 1편, 특수교육인 연구가 1편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활용된 음악활동을 살펴보면 주의집중을 위해 악기연주가 공통적으로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악기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를 제외하고 악기는 타악기 종류, 사용음악으로는 동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음악제공방법으로는 라이브음악제공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모두 음악치료전공 연구자가 진행한 연구로 나타났다.

(2) 언어영역

목표영역이 언어영역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 음악치료인 연구가 2편, 언어치료인 연구가 1편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활용된 음악활동 중 노래부르기는 모든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사용악기를 제시한 연구는 1편이었으며 타악기 및 취주악기도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음악으로는 동요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창작곡도 사용되었다. 음악제공방법과 관련하여 라이브음악을 제공한 논문이 2편, 녹음음악을 제공한 논문이 1편으로 나타났다.

(3) 정서영역

목표영역이 정서영역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 음악치료인 연구가 3편, 특수교육인 연구가 1편, 심리치료인 연구가 1편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활용된 음악활동과 관련하여 타 영역보다 정서영역에서 활용된 활동의 다양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래부르기는 정서영역의 모든 연구에서 활용되었으며, 구조화된 악기연주와 즉흥연주는 5편의 연구 중 4편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자아정체감 및 자아존중감과 감정표현 향상을 세부변인으로 한 2편의 연구에서 노래토의가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악기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와 사용악기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를 제외하고 타악기 종류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음악에 있어서는 동요와 대중음악이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되었다. 음악제공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를 제외하고 2편의 연구에서는 모두 라이브음악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영역

목표영역이 사회영역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 음악치료, 특수교육인 연구가 각각 1편씩이었다. 노래부르기는 모든 연구에서 활용되었으며, 사회적 기술 발달을 위해 그룹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활동이 주로 활용되었다. 사용악기를 제시한 연구는 1편에 불과하였으며 사용한 악기 종류는 타악기였다. 사용된 음악으로는 동요와 클래식음악이 있었으며, 음악제공방법은 모든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였다.

(5) 신체영역

목표영역이 신체영역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 음악치료, 특수교육인 연구가 각각 1편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구에서 음악감상이 공통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신체 움직임을 돕기 위한 달리기, 댄스 등이 음악과 함께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함된 연구에는 악기가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악기가 제시되지 않아 사용된 악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사용음악은 동요와 클래식음악이었고, 모든 연구에서 녹음음악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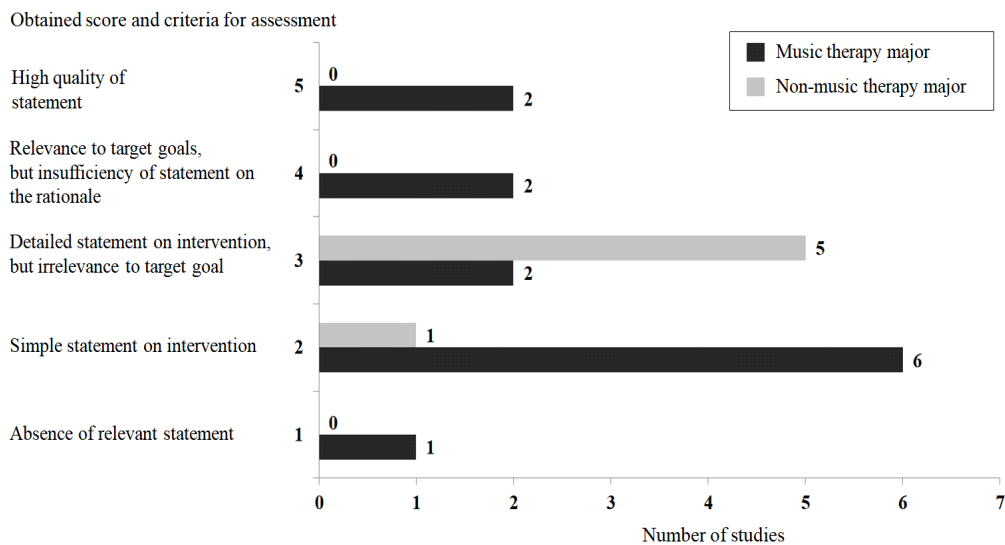
(6) 행동영역

목표영역이 행동영역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 음악치료인 연구가 3편, 특수교육인 연구가 1편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종속변인으로는 부적응행동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의집중행동 순이었다. 연구에서 활용된 음악활동 중 노래부르기와 구조화된 악기연주, 즉흥연주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구에서 타악기 종류를 사용하였으며 사용음악의 경우 동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음악제공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연구를 제외하고 모든 연구에서 라이브음악을 제공하였고 1편의 연구에서 라이브음악과 녹음음악을 함께 제공하였다.

3. 음악중재관련 실행방법 기술 수준과 논거의 적절성

1) 제시된 음악중재 실행방법의 기술 수준과 논거의 적절성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음악중재 실행방법의 기술 수준과 논거의 적절성을 총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음악치료 전공자의 연구에서는 3점 이상 받은 연구가 13편 중 4편으로 나타났고, 해당 연구 모두 최근에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 분야 전공자의 연구 중에는 3점 이상 받은 연구가 없으며 7편 중 6편이 2점, 1편이 1점으로 평가되었다(<Figure 2> 참조).



<Figure 2> Results of quality assessment in terms of level of statement for rationale.

2) 제시된 논거의 목표영역별 내용

논거 내용의 평가에서 3점 이상인 연구를 대상으로 목표영역과 중재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였다(<Table 4> 참조). 분석된 연구는 신체와 행동영역을 제외한 인지, 언어, 정서, 사회영역을 목표로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연구가 음악치료 전공자의 연구로 나타났다. 같은 노래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음에도 목표영역별로 연구자가 제시한 논거의 내용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연구에 기술된 논거의 자세한 내용은 <Appendix 4>에 제시되었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Assessed With High Quality of Statements on Rationale (n = 4)

Author	Goal area	DV	Field of study	Intervention contents		Subjects of description for rationale
				Type of activity	Primary music task	
Ji (2015)	Cog	Executive function	MT	Music making	Creating lyrics and music using music technology (tablet PC-based music making software)	Music making activity, and specific procedures (e.g., lyric creation, and melody composition)
Kang (2004)	SpL	Communication skills	MT	Singing, instrumental playing	Singing in the form of conversation	Music element (rhythm) and lyrics
Yoon & Soon (2016)	Emo	Identity, self-esteem	MT	Song writing	Discussing lyrics, changing words to a song, and creating lyrics	Song writing activity and specific procedures (e.g., lyric analysis and lyric creation)
Jang (2011)	Soc	Social skills	MT	Singing, instrumental playing, music listening	Singing while taking turns and moving in response to songs or music	Used music elements (e.g., melody and changes in dynamic), lyrics, and music structure

Note. Cog: cognitive; SpL: speech/language; Emo: emotional; Beh: behavioral; Soc: social; Mot: motor.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음악중재연구를 최초 게재년도인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20편 선정하였고, 이를 전반적 특성, 중재내용의 특징, 음악중재의 실행방법 및 논거의 내용수준과 적절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연구에서 제시된 음악중재의 실행방법 기술 수준과 적절성을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별, 목표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제시된 논거가 적절하지 않거나 부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연구마다 점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이 치료적으로 적용된 연구와 또 다른 목적으로 적용된 연구를 함께 분석하였을 때 중재내용에 따른 제시논거와 중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야 전문성의 필요 및 그 차이의 해석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 선정한 분석대상 연구의 경우 제공된 중재내용은 다르지만 적용된 논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었다. 특히 인지영역과 정서영역의 연구는 전체 분석대상 연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임에도 적절한 논거를 제시한 연구가 적어 연구 간 공통점을 발견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음악치료 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고 사용되는 음악과 악기의 근거 제시를 위해서는 명확한 논거기술이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국외의 음악치료 연구를 살펴보면 선행연구가 타당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한 연구도 확인할 수 있는데(Robb, Carperter, & Burns, 2011),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평가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며,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음악치료사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목표영역별 음악중재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특정 목표영역에 따라 세부 음악활동, 사용악기, 중재형태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언어영역 연구의 경우 타 영역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취주악기를 사용한 연구가 나타났으며, 사회영역 연구의 경우 사회기술 발달을 위해 그룹으로 음악중재가 시행되었다. 또한 모든 영역 연구에서 노래부르기와 구조화된 악기연주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지만 정서영역 연구의 경우 타 영역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노래토의, 노래만들기, 작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목표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음악활동, 악기, 중재형태가 활용되었다는 것은 목표영역에 따른 음악중재의 구성을 타당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치료중재의 과정은 진단, 목표설정, 중재계획, 평가의 순서로 계획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Chong, 2015), 계획된 중재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른 음악활용을 위한 전문성은 연구에서도 요구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분석연구가 게재된 학술지의 연구 분야를 살펴보았을 때 음악치료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의 저자는 모두 음악치료전공자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음악치료연구가 등재지 구분영역 중 음악학 내 음악심리학 및 치료학에 속한 학술지에 대부분 게재되고 있으며, 음악치료연구의 융복합적 특성으로 인해 게재되는 학술지의 범위가 다양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Kim, 2018).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의 연구는 음악치료학문 이외에도 교육이나 사회과학적 접근을 주로 하는 학술지에도 게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게재학술지의 전문분야에 따른 논문게재 과정에서의 전문성이나 연구의 이해 및 평가의 관점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음악치료 연구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중재타당성 및 신뢰도 유지를 위해 이에 대한 이해 및 평가가 가능한 학술지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사용악기를 연주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무울타악기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타악기의 장점으로 진동이 크고 연주방법 및 조작성 용이하다는 것을 사용 이유로 제시하였다.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은 타악기를 선호하며, 진동이 큰 악기를 선호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Park, 2013), 대상군의 특징에 따른 악기를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의집중시간이 짧은 지적장애 청소년의 특징을 고려하여 악기를 대신한 도구로 태블릿PC가 활용된 연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Ji, 2015). 태블릿PC는 음악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간단한 조작만으로 연주가 가능하며 이동에 한계가 있는 전자악기를 대신하여 음악치료 중재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태블릿PC의 활용범위의 확장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음악제공방법에 따른 분석에서 녹음음악보다 라이브음악의 제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음악중재를 적용한 단일대상연구를 분석한 Ahn(2014)의 연구에서도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라이브음악의 제공 비율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음악제공방법을 연구자의 학문적 분야에 따라 나누어 살펴봤을 때 타 분야 전공자의 연구는 녹음음악을 제공한 비율이 높았고 음악치료전공자의 연구는 라이브음악을 제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녹음음악보다 라이브음악은 감정에서 나온 생각, 태도, 행동을 표현하도록 돕기 때문에 라이브음악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Cha & Moon, 2015). 또한 라이브음악은 대상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반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활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점을 바탕으로 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중재는 치료원리와 논거를 바탕으로 타당하게 이루어질 때 그 효과성을 논할 수 있으므로 음악중재연구 내 중재기술 내용의 구체성과 논거 제시는 향후 연구에 대한 평가나 해석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음악중재전문가의 중재 실행여부 또한 중재에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훈련받은 전문가에 의해 실행되지 않은 단순 음악적용 연구의 경우 음악치료분야에서의 해석이 제한되어야 한다.

둘째, 음악치료 연구게재학술지의 범위가 넓어지고 음악치료분야의 연구보다 음악치료 외 분야의 게재비율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은 음악의 치료적 전문지식이 없는 타 분야 전문가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작성된 연구를 해석함에 있어 오류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음악치료분야의 학문적 확장 및 전문성 입증을 위해 후속연구는 전문적 기반을

갖춘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음악이해를 바탕으로 치료적 접근을 할 때 이에 대한 논거와 구체적인 기법의 활용, 혹은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음악 경험의 즐거움으로 인한 일시적 행동변화 이상의 일관된 치료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재기술 내용의 부족 및 논거와 활동 간의 연계성 부족은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음악치료 중재에 대한 임상근거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음악치료사들의 해당 분야에 대한 임상근거기반 중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음악중재연구의 양적 증가와 함께 음악중재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노력도 함께 증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분석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음악중재에 대한 대상자의 범위를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였지만, 그 대상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적장애 아동·청소년과 더불어 성인 대상 음악중재에는 어떠한 공통 요소 및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학술지만을 분석범위에 포함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진행된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음악중재연구의 비교분석은 가능하였지만 국내외의 비교는 불가하였다. 추후에는 게재기준에 따라 전문적으로 작성된 국내연구와 국외연구로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중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KCI의 등재(후보)지로 승인된 시기와 관계없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대상연구의 포함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등재(후보)지가 되기 이전의 연구 또한 분석대상 연구에 포함되었다. 앞으로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음악중재연구의 분석에서는 명확한 게재기준을 갖춘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S. H. (2014). *A systematic review of single-subject design studies using music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2000-2013*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안성희 (2014).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음악 중재를 적용한 국내 단일대상연구의 체계적 고찰: 2000-2013년 연구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ruscia, K. (2014). *Defining music therapy* (3rd ed.). University Park, IL: Barcelona Publishers.
- Cha, J. Y., & Moon, J. Y. (2015). A meta-analysis of the music 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Arts Studies*, 11, 193-224.
[차지연, 문지영 (2015). 우울감소를 위한 음악치료 연구 메타분석. **한국예술연구**, 11, 193-224.]
- Chang, I. S., & Lee, H. J. (2014).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by the change of lyrics on the improvement of the receptive language and the expressive language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Healing Arts*, 3, 63-79.
[장인숙, 이혜진 (2014). 가사바꾸기를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가 지적장애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에 미치는 영향. **임상예술치료연구**, 3, 63-79.]
- Chong, H. J. (2015). *Music therapy: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2nd ed.).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정현주 (201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2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Chong, H. J., Lim, J. H., & Hwang, S. Y. (2018). Review of studies using a rhythm task intervention and rationale for its formulation.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5(1), 95-118.
[정현주, 임정현, 황수연 (2018). 국내 리듬 중재 연구의 중재 구성 및 논거에 대한 고찰.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5(1), 95-118.]
- Jang, Y. H. (2017). *A meta-analysis of effects on group musical activities for disabl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Cheonan.
[장연희 (2017). **장애아동을 위한 집단 음악활동 효과 메타분석**.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Ji, K. M. (2015). A tablet PC-based music-making program for improving executive function of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2(1), 1-21.
[지경미 (2015). 지적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 향상을 위한 태블릿 PC기반 음악 만들기 활동.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2(1), 1-21.]
- Kim, H. Y. (2018). Music therapy research trends in KCI journals.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5(2), 1-22.
[김하영 (2018). 등재학술지 내 음악치료 연구 게재 현황.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5(2), 1-22.]
- Kim, K. H., & Kim, E. H. (2015). A review of research on music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Journal of Emotion & Behavioral Disorders*, 31(3), 21-50.

- [김건희, 김은혜 (2015). 장애학생을 위한 음악 관련 연구동향 분석: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21-50.]
- Kim, K. J. (2013). *A review of music therapy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김경진 (2013). *지적장애 아동 대상 음악치료의 국내 연구 동향분석*.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ee, D. S. (2015). The effects of musical intervention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Literature review of the studies published in 2000-2014. *Special Education Research*, 14(1), 363-390.
- [이대식 (2015).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음악적 중재 내용과 적용 효과: 2000-2014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14(1), 363-390.]
- Lee, J. Y. (2012). *Analysis of the tendency of Korean master's thesis related to music therapy for intellectual disability (1999-2012)*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i University, Gunpo.
- [이진영 (2012). *지적장애 대상 관련 국내 음악치료 학위논문 경향분석 (1999-2012)*.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ee, S. I. (2018). *Analysis of the music application and therapeutic rationale in music intervention studies for respiratory rehabili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이승인 (2018). *국내·외 호흡재활을 위한 음악 중재 연구에서 사용된 음악 활동 및 치료 논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Ministry of Education (2018).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2018. Retrieved from <http://www.nise.go.kr/boardCnts/view.do?boardID=356&boardSeq=7013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nise&m=010502&opType=N>
- [교육부 (2018). 2018 특수교육통계. <http://www.nise.go.kr/boardCnts/view.do?boardID=356&boardSeq=7013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nise&m=010502&opType=N>에서 인출.]
- Morton, L. L., Kershner, J. R., & Siegel, L. S. (1990). The potential for therapeutic applications of music on problems related to memory and attention. *Journal of Music Therapy*, 27(4), 195-208.
- Park, E. J. (2013). *Intellectual disability special education school musical lecture teaching method guideline development aiming first and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박은주 (2013).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과의 음악치료교육중심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초등학교 1-2학년군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Robb, S. L., Carpenter, J. S., & Burns, D. S. (2011). Reporting guidelines for music-based intervention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2), 342-352.
- Seung, Y. H. (2006).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music therapy in general music education. *Music and Korea, 32*, 439-464.
- [승윤희 (2006). 학교음악교육에 있어서 음악치료의 의미와 교육적 활용방법. *음악과 민족, 32*, 439-464.]
- Yun, Y. E. (2018). Improved self-expression of adolescents with cochlear implants after a songwriting intervention: A case study.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5*(2), 69-92.
- [윤예은 (2018). 노래만들기 중재를 통한 인공와우이식청소년의 자기표현 능력 향상사례.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5*(2), 69-92.]

- 게재신청일: 2019. 05. 04.
- 수정투고일: 2019. 05. 20.
- 게재확정일: 2019. 05. 20.

An Analysis of Music Intervention Stud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Korea

Lee, Seung 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iterature on music interventions for youth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intervention, target goal domains, and the quality of statements on intervention contents and rationale were explored. What type of intervention was applied in each target goal domain and how studies differed in terms of the quality of stated rationales depending on the authors' field of study were also analyzed. A total of 20 articles published in KCI journals were identified. The analysis showed the differences in intervention contents depending on the authors' research field and target goal area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only two studies stated an appropriate rationale based on the theory of music therapy and relevant research. Discrepancies on the quality of rationale between researchers with music therapy majors and with non-music therapy majors indicated the importance of the music therapy professionalism in expecting and interpreting the intervention outcom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ways in which music intervention studies could be improved to further the field and contribute to the rigor of these interventions for youth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Keywords : intellectual disability, music intervention research, children and adolescents, music therapy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Music Therapist, Dalseong Rehabilitation Center, Korean Certified Music Therapist(KCMT) (mte15se@naver.com)

<Appendix 1> 분석대상연구 목록

번호	저자 (년도)	제목	학술지명	학문적 배경	연구 방법	대상자 연령(세)
1	성인영 (1999)	음악활동이 정인지체아동의 부적응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 치료학회지	음악치료	단일집단 사전사후	7-9
2	최희선 (2000)	음악적 중재전략이 정인지체학생의 쌍언합 단어학습의 보유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 치료학회지	음악치료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14-19
3	이혜경 외 (2000)	음률활동에 의한 정인지체아동의 언어능력 개선효과	특수교육학 연구	언어치료	단일대상연구	8-9
4	박은정, 이인경 (2002)	음악이 정인지체 아동의 달리기 지속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 체육학회지	특수교육	단일대상연구	9-13
5	강성미 (2004)	정인지체아동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노래활동 사례 분석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음악치료	사례연구	7-10
6	이주연, 정광조 (2006)	오르프 음악치료활동이 정인지체 청소년의 인지능력 및 운동능력 향상에 미치는 사례 연구	예술심리 치료연구	음악치료	사례연구	15-18
7	진영기, 권주석 (2006)	음악 표현활동이 정인지체학생의 부적응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	발달장애 연구	특수교육	단일집단 사전사후	16-19
8	곽현주, 김군자 (2006)	정인지체아동의 과잉행동 개선을 위한 자유즉흥 음악치료 사례연구	예술심리 치료연구	음악치료	사례연구	13
9	박이남, 권주석 (2006)	음악 치료 프로그램의 적용이 고등부 정인지체학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지적장애 연구	특수교육	단일집단 사전사후	17
10	김영주, 정광조 (2006)	가창활동이 정인지체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 치료연구	음악치료	사례연구	6-7

<Appendix 1> 계속

번호	저자 (년도)	제목	학술지명	학문적 배경	연구 방법	대상자 연령(세)
11	김민경 (2007)	자일로폰 악기연주 활동이 정신지체 청소년의 주의집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 치료학회지	음악치료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14-16
12	정영주, 김영태 (2008)	음악을 이용한 언어중재가 지적장애 아동의 상대어 개념 습득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	언어치료	단일대상연구	9-14
13	최애나, 오은주 (2009)	음악치료가 경도정신지체아동의 감정어휘 습득 및 감정표현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 치료연구	음악치료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12-17
14	최애나, 한용희, 정광조 (2009)	집단음악치료가 정신지체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 치료연구	음악치료	단일대상연구	8-9
15	최애나, 김명현, 최낙천 (2009)	음악치료가 지적장애 아동의 주의집중과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 치료연구	음악치료	단일대상연구	10-11
16	장혜원 (2001)	사회성을 촉진하는 음악활동이 통합어린이집 발달장애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 연구	음악치료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4-6
17	홍은숙, 김의정 (2012)	방과 후 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 연구	특수교육	단일대상연구	9-13
18	지경미 (2015)	지적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 향상을 위한 태블릿 PC 기반 음악 만들기 활동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음악치료	단일집단 사전사후	13-16
19	백승영 (2016)	오르프 접근의 음악치료가 지적장애 학생의 주의집중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인문사회	심리치료	단일집단 사전사후	14-18
20	윤다솔, 순진이 (2016)	치료적 노래만들기가 고등학교 특수학급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 치료연구	음악치료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17-19

<Appendix 2> 논거 작성에 대한 평가 점수 범위 및 기준

점수	평가기준
4	연구자가 실행한 중재내용의 음악요소 및 음악활동을 중재 목표영역과 관련지어 음악치료 이론 혹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거를 기술한 경우
3	연구자가 실행한 중재내용의 음악요소 및 음악활동을 중재 목표영역과 관련지어 기술한 경우
2	연구자가 실행한 중재내용이 목표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지만 실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
1	연구자가 실행한 중재내용만 기술한 경우
0	해당 사항 없음

<Appendix 3> 목표영역별 음악중재 특징(단일목표영역)

목표영역	저자(년도)	학문배경	중속변인	활동종류	사용악기	사용음악	제공방식
인지	김민경(2007)	음	주의집중력	SIP	금속유클 타악기	동요	라이브
	정영주, 김영태(2008)	언	상대어 개념습득	S, MM, O(Mov)	금속유클 · 가죽무울 타악기	창작곡	미기재
	지경미(2015)	음	집행기능	S, SIP, MM	기타(태블릿PC)	창작곡	라이브
	최희선(2000)	음	쌍연합단어 학습보유력	S, SIP	미기재	미기재	라이브
언어	강성미(2004)	음	의사소통	S, SIP	해당 없음	동요	라이브
	김영주, 정광조(2006)	음	언어발달	S, SIP, O(Mov)	가죽무울 타악기, 취주악기, 기타(마라카스, 에그쉐이커)	동요 창작곡	라이브
	이혜경 외(2000)	언	언어능력	S, SIP, L, O(Mov)	미기재	동요	녹음
정서	박이남, 권주석(2006)	특	스트레스	S, SIP, Imp	금속유클 · 금속무울 · 가죽무울 · 나무무울 타악기	동요	라이브
	윤다솔, 순진이(2016)	음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S, SD, MM, SD, L	해당 없음	대중음악	미기재
	최애나, 한용희, 정광조(2009)	음	자기표현	S, SIP, Imp, O(Mov)	쉐이커, 첼로	동요	미기재
	최애나, 오은주(2009)	음	감정어휘 습득, 감정표현	S, SD, SIP, Imp, MM, O(Mov)	가죽무울 · 나무무울 · 금속무울 타악기	동요 대중음악	미기재
사회	장혜원(2011)	음	사회성	S, SIP, L, O(Mov)	미기재	동요 클래식	미기재
	홍은숙, 김의정(2012)	특	사회적 상호작용	S, SIP, MM, L, O(Mov)	금속유클 · 가죽무울 · 나무무울 타악기, 에그쉐이커	동요	미기재
신체	박은정, 이인경(2002)	특	달리기 지속시간	L, O(Running)	해당 없음	동요 클래식	라이브
행동	곽현주, 김군자(2006)	음	과잉행동	Imp	금속유클 · 가죽무울 · 나무무울 타악기, 기타(피아노)	동요 창작곡	라이브
	성인영(1999)	음	부적응행동 주의집중행동	S, SIP, O(Mov)	금속유클 · 가죽무울 타악기, 기타(에그쉐이커)	미기재	라이브
	진영기, 권주석(2006)	특	부적응행동	S, SIP, Imp, O(Mov)	금속유클 · 금속무울 · 가죽무울 · 나무무울 타악기, 기타(피아노)	동요	라이브/녹음

Note. 음: 음악치료; 언: 언어치료; 특: 특수교육; SIP: Structured Instrumental Playing(구조화된 악기연주); S: Singing(노래부르기); MM: Music Making(음악만들기); O: Others(기타); Mov: Movement(신체 활동 혹은 율동); L: Listening(음악감상); Imp: Improvisation(즉흥연주); SD: Song Discussion(노래토의).

<Appendix 4> 목표영역별 음악중재 특징(복수목표영역)

목표 영역	저자(년도)	학문 배경	종속변인	활동	사용악기	사용 음악	제공 방식
인지/ 정서	백승영(2016)	심	주의집중력, 자아존중감	S, SIP, Imp, MM	미가재	동요, 가요	-
인지/ 신체	이주연, 정광조 (2006)	음	인지능력, 운동능력	S, SIP, L, O ^a	미가재	기타 (오르프 음악)	라이브
인지/ 행동	최애나, 김명현, 최낙천(2009)	음	주의집중, 부적응행동	S, SIP, Imp	금속유폴·금속무율·가죽 무율·나무무율 타악기, 기타 악기	동요	-

Note. 심: 심리치료; 음: 음악치료; S: Singing(노래부르기); SIP: Structured Instrument Playing(구조화된 악기연주); Imp: Improvisation(즉흥연주); MM: Music Making(음악만들기); SD: Song Discussion(노래토의); L: Listening(음악감상).

^a포크댄스, 합주, 지휘

<Appendix 5> 논거 관련 상위 평가된 논문에 대한 세부 분석내용

저자 (년도)	학문 배경	목표 영역	세부 목표	활동논거내용
지경미 (2015)	MT	인지	집행기능 향상	<p><태블릿PC를 활용한 음악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만들기: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완성하고자 하는 요구를 자극함으로써 집중하여 참여하도록 함. 대상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함 • 대상자들은 음표의 박자 이해를 위해 인지기능을 활용하고 음표를 이해하도록 함 • 멜로디를 만들면서 계획하기와 개념추론이 요구됨 • 가사의 창작을 통해 주제에 대한 연상과 개념 전환이 가능함
강성미 (2004)	MT	언어	의사소통 증진	<p><노래가사중심 노래부르기, 악기연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와 리듬적 구조는 아동들이 음성적, 음악적으로 시간 내에 알맞게 반응하고 시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위해 신호를 주고 지지하기 위해 사용됨 • 가사가 적합한 반응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전달하고 선율과 리듬은 반응에 있어서 시간 내에 신호하고 언어표현을 지지하게 됨
윤다솔, 순진이 (2016)	MT	정서	자아 정체감, 자아 존중감 향상	<p><치료적 노래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를 사용한 자기표현은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자신을 탐색할 수 있게 함 • 노래 가사에 대한 토의 및 가사완성활동은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자신의 감정을 노래의 은유적인 가사에 투사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함 • 그룹과 함께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적인 과정 안에서 협동 과제를 처리해나가며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긍정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음 • 완성된 결과물을 통해 내담자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함
장혜원 (2011)	MT	사회	사회성 발달	<p><노래부르기, 악기연주, 음악감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적가사, 주고받는 구조, 상승하는 멜로디, 다이내믹의 변화, 반복되는 멜로디가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활동을 진행함